

[새 사상 새 로정 인솔]

군중의 질병 의료 뒤근심 덜어주어



중경시구통파구인민병원에서 의료돌봄사(간병인) 마강평이 환자에게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다.

/중경일보

습근평 총서기는 전민의료보험제도를 건립하는 근본 목적은 바로 전체 인민의 질병 의료 뒤근심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 우리 나라 의료보험은 보급 면이 작던 데로부터 큰 데로, 보장 수준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관리서비스는 유에서 랑질로 전환했다. 한편, 직결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격지 진료에 편리를 제공하고 '무동반 돌봄서비스'를 통해 '한사람이 입원하면 온 가족이 뛰어다니는' 난제를 해결했다. 일련의 새로운 조치는 보험에 가입한 군중의 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발전과 관리를 촉진했다.

산동성 위해시립병원의 진료청사에서 환자들이 한창 질서있게 결제절차를 밟고 있다. 2024년 11월 21일, 아침 8시 쯤 넘어 환자 공선생은 이곳에서 국내 첫 관상동맥 경화성 심장병의 만성질환 관련 치료비를 격지결제 방식으로 직접 결제했다.

공선생에 따르면 관상동맥 경화성 심장병 치료는 예전에 격지결제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직결제정책이 있어 선불금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호북 효감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위해에서 거주하는 공선생은 줄곧 의약비 전액을 먼저 지불한 후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호북 효감에 돌아가 결제해야 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이 관상동맥 경화성 심장병 등 5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의 격지 직결제서비스를 시운행한 후 공선생의 고민은 눈이 녹듯 말끔히 해소됐다. 현재 국내에서 타지역 의료보험 직결제가 가능한 만성질환은 10가지로 증가했다.

산동성 의료보험사업중심 격지진료 서비스처 책임자 조연에 따르면 보급 범위가 끊임없이 넓어지면서 격지치료 직결제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2024년 12월말까지 산동성에서 취급한 만성질환 격지 직결제 보험가입자수는 루게로 67만 3,300명, 환자에게 선불금 8억 5,700만원을 줄여주었다.

직원보험가입자 3억여명과 주민의료보험가입자 10억명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개혁—직원의료보험 개인계좌 성간 격지공제(跨省共济) 정책이 2024년말 공식 가동됐다.

국가의료보장국 빅데이터센터 주임 부초기는 이 정책은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공제가 성역(省域)의 제한을 타파하여 더 많은 자금이 광범한 군중의 신체건강을 확보하고 인력의 질서적인 류동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통일된 대시장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결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군중들이 타지에서 치료를 편하게 받게 되었다.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지구에서는 병원이 주도하고 제3자 기구가 참여하는 '무동반 돌봄서비스' 시범업무를 잇달아 시행함으로써 '한사람이 입원하면 온 가족이 뛰어다니는' 난제를 해결했다. '무동반 돌봄서비스'를 통해 수술을 마친 환자의 모든 간호는 의료 간호사가 책임진다.

강소성 서주시중심병원 홍외2과 '무동반'병실에서 의료돌봄사(간병인)가 간호사의 지도하에 폐결절 수술 환자의 재활훈련을 돕고 있다. 병원 홍외2과 간호장 리민은 전문 의료돌봄사가 전통적 가족돌봄을 대신하며 전문기능과 리론교육을 받은 돌봄사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

고 환자의 수요를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도 유조하다고 소개했다.

회의감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무동반 돌봄은 점차 환자와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지에서는 또 감습모식을 모색하고 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방식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봉사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절강성 의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에서 감독심사하고 환자가 간병인을 평가하는 조치는 간병인 직업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의오시중심병원 간호부 간호장 정연남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다방면의 윈윈(共赢)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간병인이 전문적 간호능력을 갖추면 환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이 자체의 기술이 있다면 간병인도 정체성을 갖추게 될 것이고 직업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국가의료보장국은 간호류 립건지침(시행)과 간호가격 정책 최적화 조정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무동반 돌봄서비스' 가격항목을 신설해 각지의 표준화 발전방향을 명확히 했다.

하문대학 부속 심혈관질환병원은 2017년부터 '무동반 돌봄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병원 부원장 진원은 '무동반 돌봄서비스'는 진정으로 가족을 해방시키고 병실의 질서를 재구축하여 모든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를테면 치료성식단을 제공하고 외출검사 시 간병인이 동행해 환자의 우려를 크게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장은 군중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다. 날로 보완되고 있는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보장망을 구축해 의료에 대한 군중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전민의 건강수준을 뚜렷하게 격상시켰다.

습근평 총서기가 말했듯이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을 1에 비유하면 다른 것은 모두 그 뒤의 0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1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성적을 바탕으로 보건건강사업을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상무부: 미국 기업 10 곳에 조치

중국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기제'는 2일 공고를 내어 록히드마틴 계열사(洛克希德·马丁导弹与火控公司) 등 10개 미국 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처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째, 이들 기업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을 금지한다. 둘째, 이들 기업의 중국내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셋째, 이들 기업 임원의 입국을 금지한다. 넷째, 이들 기업 임원의 중국내 사업허가, 체류 또는 거류 자격을 승인하지 않고 취소한다. 본 공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신화넷

로씨야: 미국산 미사일 사용, 우크라 보복할 것

로씨야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룡군 전술미사일체계(ATACMS)를 사용해 벨고로드주를 공격한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로씨야 국방부가 4일 경고했다.

로씨야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3일 ATACMS 미사일을 사용해 벨고로드

주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로씨야군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과 방공시스템 판치르-SM이 전부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취한 모든 행동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넷

미국, 이스라엘에 80억달러 무기 판매



3일, 가자지구 중부 알 마가지 난민영에서 현지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부서진 가족을 돌아보고 있다.

/신화넷

닉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복수의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8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상·하원에 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무기에는 AIM-120C-8형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155밀리미터 포탄, AGM-114형 '헬파이어'(地狱火)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통합 정밀 직격탄 등이 포함됐다. 무기 대부분은 인도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보를 받은 상·하원 외교관계 위원회는 해당 무기 판매 건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번 판매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내 이스

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판매가 된다.

미국 브라운대학 '전쟁비용 프로젝트'의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새로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3일, 팔레스타나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분쟁 시작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나에서 약 4만 6,000명의 사망자와 10만 9,000명에 육박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수가 계속 늘어나자 미국내에서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화넷

일본 동북부 폭설, 적설 두께 왕년의 3배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4일 16시, 아오모리현(青森县) 등 여러 곳에 12시간 동안 최대 강설량이 25센티미터 좌우 쌓였다. 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끼시(弘前市) 등지는 왕년 대비 3배가 넘는 120센티미터 좌우의 눈이 쌓였고 히로사끼시는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1월의 최대 적설량을 갱신하기도 하였다. /신화넷

련운항—인천 러객선, 20년간 174만명 운송



2024년 7월, 한국에서 온 40여명의 관광객이 '조화운항'호 러객선을 타고 련운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해상 운대산, 화과산 등지에서 련운항의 신기한 랑만감을 느꼈다. /련운항넷

한국 인천으로 향하는 '조화운항'호가 2024년 12월 30일 강소성 련운항을 출발했다. '조화운항'호는 강소성 유일의 한국행 러객·화물선이다. 지난 20년간 련운항출입경변변검사소를 거친 출입경 러객수는 총 174만명

(연인원), 왕복 러객·화물선은 2,600척(연척수)에 달한다.

"련운항은 화과산(花果山)과 련도(连岛)가 유명한데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 김기문은 얼마전 한

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면제 정책을 리용해 련운항항구 러객통상구로 입경했다. 자전거를 리용해 이국적인 풍경을 몰입식으로 즐겨볼 계획이다.

러객선을 통한 다국간 련행 방식과 편리한 통관 모델이 날로 성숙해지면

서 관광객의 수요를 크게 만족시키고 있다.

2024년 12월 23일, 왕씨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조화운항'호에 올라서며 7일간의 한국 단체려행을 시작했다.

그는 "련운항에서 한국까지 가는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배 위에서 바다 풍경을 보며 바다바람도 맞을 수 있었다."면서 "정말 편안했다."고 회억했다.

해당 단체관광의 책임자인 리가가는 중한 러객선 로선을 리용해 10년 넘게 다국간 련행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4년에만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소화했다. 리가가는 "중국 개방의 문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관광 기업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외 련행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련운항출입경변변검사소는 통관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해결책을 내놓고 러객 흐름의 변화에 맞춰 동적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경찰력을 정확하게 배치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중한 량국의 경제무역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화넷